본사 주지 모임 '공감과 미래' 출범

한국불교 발전 · 종책 논의 예정
회장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특정 후보 지지 아닌 종책 제안"
일부 교구, '모임 성격'에 이견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국불교 발전과 종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공감과 미래'를 발족했다. 모임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과 종단 현안을 공유하고 종책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를 지향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7월 6일 대전에서 모임을 열고 '공감과 미래'를 공식 출범했다. 회장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선임됐으며 간사는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이 맡았다. 이날 모임에는 지난 7월 2일 공동성명에 참여한 14개 교구본사 가운데 10개 본사 주지 스님이 참석했고, 3개 본사는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7월 2일 발표된 14개 교구본사 주지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당시 주지 스님들은 입장문을 통해 "6월 11일 열린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따라 공정하고 여법하게 치러지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 지지로 비칠 수 있도록 전달된 것은 본래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회장으로 선임된 호산 스님은 "'공감과 미래'는 특정 기관에 소속된 조직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와 종단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임의 모임"이라며 "교구본사 주지들이 교구를 운영하며 느낀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모아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후보들의 종책 구상을 듣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흐름을 종단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역할을 보다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교구의 의견이 종단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이라는 해석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호산 스님은 "공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스스로 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후보가 확정되면 모임에서 논의된 종책과 제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소통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구본사 스님들도 언제든지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과 미래'는 7월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식과 논의 주제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교구에서는 모임의 성격을 두고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14개 본사 성명에는 참여했지만 이번 모임은 '공정선거를 위한 교구장 간담회'라고 설명을 들었다"며 "그 부분에는 별도로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또 다른 교구본사 주지 스님도 "향후 운영 방향을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공감과 미래'가 앞으로 교구본사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7월 4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훈련병에게 단주를 전달하고 있다.

상진 스님, 훈련병 3000명에 수계

7월 4일 호국연무사서
군 포교 후원금 전달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 3000명에게 수계하며 군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상진 스님은 7월 4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혜총 스님)에서 열린 수계대법회에서 훈련병 3000명에게 오계를 수여하고, 군 포교 활성화와 신행활동 지원을 위해 호국연무사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계사로 나선 상진 스님은 법문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의 출발"이라며 "오늘 받은 오계를 지키는 삶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악업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인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며 "오늘 수계한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훈련병들은 오계를 수지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힘차게 서원하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 이어 상진 스님은 군 포교 후원금 2000만원을 호국연무사 주지 혜총 스님에게 전달했다. 후원금은 장병 법회와 신행 프로그램 운영 등 군 포교 활성화에 사용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사회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논하다

조계종, 선명상국제컨퍼런스
7월 9일 총무원 지하공연장
진우 스님 "함께 사는 지혜를"



조계종과 김준혁 국회의원, 씨러닝 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가 7월 9일 열렸다. 사진은 개회식 후 진행된 기념촬영.

한국사회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다양한 명상 수행법과 뇌과학, 교육 등에서 찾아보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준혁 국회의원, SEE Learning Korea(씨러닝 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가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대회사를 통해 현대사회가 마음의 위기 속에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의 시대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오랜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리고자 선명상을 널리 펼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건강은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학문과 수행, 교육과 정책, 시민사회와 공동체를 잇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 한국사회가 보다 따뜻한 연결과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컨퍼런스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자비의 과학과 한국 사회의 마음건강'에서는 롭상 텐진 네기(Lobsang Tenzin Negi) 에모리대학 명상 과학 및 자비 기반 윤리 센터장이 '자비의 과학과 마음건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티모시 해리슨(Timothy Harrison) CBCT 디렉터가 '사회에서의 자비의 실제와 효과'를 통해 자비 실천이 스트레스와 자기비난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2부 '감정, 발달, 교육으로 확장되는 자비'에서는 로빈 누스룩(Robin Nusslock)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과 교수가 '감정의 뇌: 건강과 자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명상이 감정 조절과 자기인식에 미치는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또 로버트 W. 로저(Robert W. Roeser) 에모리대 명상 과학 및 자비 기반 윤리 센터 연구소장이 '자비의 발달: 연구 결과와 미래 방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정서역량 발달 가능성을 제시했다. 손두샘펠(Tsondue Samphel) 씨러닝 공동 디렉터는 '마음건강 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의 실제: SEE Learning의 사례'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SEE Learning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 혜주 스님이 좌장을 맡아 '한국 사회의 마음건강,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마음 평안 정책 추진을"

7월 8일, 한성숙 총리 예방서
한 총리 "국민 위안 정책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 평안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7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민 마음평안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경제성장과 균형발전 못지않게 국민 마음 평안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스트레스는 높고 행복지수는 낮다"며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짚으며 "선명상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고독사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이런 사회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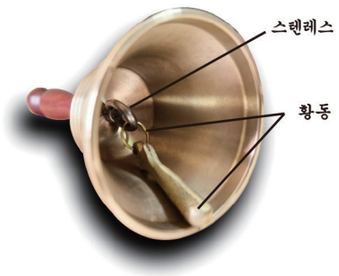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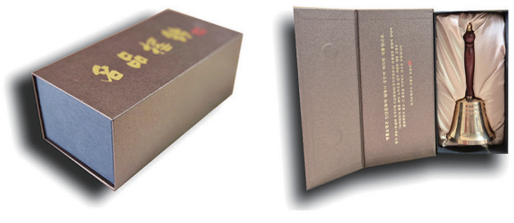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